



뉴스레터 2025 겨울호 / 제21호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아프리카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이사장 최재걸
아프리카미래재단(한국) 이사장

2024년 8월 말에 짐바브웨 빅토리아에서 아프리카미래재단 선교대회가 있었다. 재단이 출범한지 17년만에 두 번째 선교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26개국에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사들과 같이 쉼을 얻고 사역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11월 말에는 마다가스카르, 에스와티니와 남아공을 방문하여 사업현장도 둘러보고 왔다.

한국의 개신교 선교는 의료 선교가 중심이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로제타 홀 선교사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라는 마음을 품고 누구도 가려하지 않던 조선 땅을 밟았다. 그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고도 떠나지 않고 여성 의사의 양성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아프리카는 조선처럼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된다. 그 안에서 사는 웃음이 많은 아이들에게 미래를 만들어 주려는 빛진 자의 마음이 아프리카미래재단 사역의 토대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역병원 맞춤형 통합의사 교육을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골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빈도가 높은 몇 가지 수술 방법을 훈련시켜서 시골에서 필요한 수술을 못 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을 막고자 시작한 것이다. 20명의 훈련생들을 배출하는 수료식에 다녀왔다.

이 사업의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었다. 훈련을 받던 수련 의사가 혼자 근무하고 있었는데 칼에 찔린 환자가 왔다. 간열상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선배 의사에게 수술을 집도해 달라고 연락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 수련 의사는 단독으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교육받았던 대로 간봉합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환자는 회복되었다. 수료식에서 만난 정부관리들은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고, 수련생들의 눈에서는 자신이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볼 수 있었다.

짐바브웨에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다. 소아과 의사선교사가 소아 뇌성마비 환아들에게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사들을 교육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태어나면 모든 비난은 엄마에게 쏟아지고 공동체로부터 낙인 찍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 사업으로 재활 치료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환아들의 운동능력이 개선되었고, 심지어는 못 걷던 아이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환아의 엄마들에 대한 꾸준한 상담으로 그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삶에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사역을 통해서 환자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에게는 희망을 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에스와티니에서는 선교사들의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의과대학 인가를 받아서 신입생을 뽑고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내가 말라위에서 단기 의료선교를 하다가 귀국한지 거의 4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이다. 귀국 후에 투병하느라 업무가 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두 차례나 아프리카를 방문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의 해맑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열정을 되살릴 수 있었다.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아프리카에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역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잠비아 선교 소식

허일봉 • 전미령 선교사

잠비아를 사랑하시며 함께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께,
에벤에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올해의 마지막 기도편지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기임에도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한국의 지인은 반팔 옷 입은 저희 성탄 사진을 보더니 열기가 전해져 추위가 덜해졌다고 합니다. 사는 곳과 형편이 달라도 공평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기도 편지로 소식 드리며 기도 부탁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1. 제라 국제 보건대학

1) 12월 13일에 제라 대학의 1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감격스런 날이었지요. 이웃에 있는 다른 단과대학 두 곳과 함께 합동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정부 청사의 강당을 빌려 진행된 졸업식은 한국과는 많이 다른 풍경이었고 제라도 첫 졸업식이어서, 스텝들과 졸업생들이 준비하느라 신경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마쳐 감사했습니다. 간호학과 6명, 임상 의학과 12명, 보건 의료요원(단기 코스) 16명이 졸업증서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들 졸업생들은 기독교 의료인들로서 새로운 삶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2채의 기숙사 건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이 되어 감사합니다. 전체 건축 과정 중 6단계에 걸쳐 시청 건축과로부터 건축 공정 감사를 받으며 짓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완공이 되면 실제 입주 허락을 받고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번 전화하고 교통비를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꼭 필요하고 안전한 절차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축비를 정성껏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 기숙사에 들어갈 이층침대 중고 50개를 구입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새로 제작하려면 엄청 큰 액수였는데 감사하게도 적절한 가격에 중고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마련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치소모 병원

1) 접수처의 리타 자매가 8개월만에 1.5kg의 미숙아를 대학병원에서 낳았는데, 인큐베이터가 부족하다며 5일만에 퇴원을 시켰습니다.





집에 온지 3일째 신생아는 황달이 심해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곳 의료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치소모도 인큐베이터가 있지만 전기공급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곳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정전 상태는 심각하고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제라 대학 첫 간호학과 졸업생 중에서 4명이 현재 치소모 병원에서 정식 간호사로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 의학과 졸업생(Clinical Officers) 4명도 인턴쉽을 하는 중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의 사회 생활 첫 걸음을 축복합니다.

3. 제라 국제 성경 교회

어른 성경 공부반, 어린이 주일 학교, 찬양대, 금요 성경 공부, 침례 준비반 등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은소푸 장로님 부부는 성경책도 기독 단체를 통해 기증도 받아오시고, 교인들 돌보는 일에 집중하시며 열심으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4. 카젬바 진료소와 유치원

엘리나 간호사의 건강이 나빠져서, 유방암이 재발되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해 영양제를 챙겨주었더니 요새 한창 열리는 망고를 손자를 시켜 한 포대를 보냈습니다. 이 귀한 동역자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5. 그밖의 일들

1) 12월 7일에는 한국의 Vine Ministry에서 기숙사 건물 가까운 곳에 우물을 파 주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지질 조사를 한 후 봤는데, 한번 만에 물이 나와 무척이나 기뻐고 감사했습니다. 지난 해 세 번이 나 마른 우물이 나왔던 소식을 전해 듣고 딱하게 여기서 더니 기꺼이 우물을 파 주신 Vine Ministry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과정 인 스탠드와 탱크, 모터 설치 등도 잘 마련 되시길 기도합니다.

2) 저희는 12월 27일- 1월 8일까지 이웃 나라인 보츠와나를 방문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그곳의 선교사들에게 잠비아 소식을 전하며 함께 동역해 줌에 감사 인사도 하며 교제를 나누고 올 예정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편의 시간으로 재충전도 하고 올 계획입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서도 기도부탁드립니다.

3) 치소모 센터에 아론 목사님네는 기거하는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해, 다른 집을 구하고 있으나 구하지 못해 기도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알맞은 집을 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동역자님!

2024년도 저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며 기도해 주신 여러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라대학과 카젬바 학생들, 치소모 센터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 구입하도록 헌금해 주시고, 기숙사 건축하도록 후원하시고 또 저희 사역을 위해 밤낮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늘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가까워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우리는 준비 완결인가? 고린도후서 13장5절 말씀으로 점검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A happy New Year !

2024년 12월 27일



우간다 선교 소식

김세현 • 노미정 선교사

파자교회에서 개척? 렉투?

1. 미국 아프리카 미래재단 아틀란타 지부에서 지원된 후원금으로 건축된 파자교회.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받은 그대로 멈추질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서는 적어도 30년 이상 주일 헌금을 모아야 겨우 25평 정도의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산술적 계산속에서 주께서 길을 여시고 지금까지 80여 곳의 교회 건축을 이루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2. 이곳에서 받은 사랑에 가만있지 못하고 전도의 불을 쏘아부음으로 지교회로서 렉토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망고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까지 63명이 예배 드리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3. 렉토교회의 교인중 한분이 땅을 1,000평 정도 내어 놓습니다. 교회를 지어달라고. 이분이 땅을 주앞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증하기를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 아들을 변화시키는지 두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내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집안에서 폭력을 일삼아 왔어요. 그런데 전도집회 후 예수가 아들에게 들어감으로 변화되었어요” 이런 간증이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키고 땅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아멘 아멘.

4. 여전히 복음은, 예수 이름은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어쩌면 이런 기적이 아프리카 곳곳에서는 일상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설은 열악하고, 건물도 초가지붕이고, 음향시스템도 없이 복하나 들고 나가지만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 마을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함께 기도” 한 열매라고 봅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후원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가치있습니다. 아멘 아멘!

5. 파자교회에서 건축후 시작된 King's Way 초등학교. 여기도 날마다 등록하는 학생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흙벽돌로 엮어 만든 초가지붕이라도 부족한 교실을 부모들이 보며 팔을 걷어부칩니다. 그리고 직접 벽돌을 발로 밟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있을 줄 압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마음에 그려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 우리는 내전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지만 다음 세대인 너희들은 잘 배우라고 격려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신나는 에스라성경대학 소식입니다.

1. 작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이곳 교육부로부터 에스라성경대학 이름을 허가받았어요. 그후 강의계획인 모든 학과목에 대한 강의요지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2. 이제 교육부 실사팀이 나와서 현장을 조사하여 최종 결정으로 대학승인 가인가부터 허락이 되는데, 으음.. 느낌이 좋네요. 6월경 가인가 날 것 같아요. 이어서 8월부터 학사과정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기대됩니다. 신학과 뿐 아니라 기독교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현직 교사 재교육 등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우간다 북동부 200키로 반경 안의 유일한 대학이 될 것입니다. 함께 손모아 주세요.

더운 뜨거운 열기와 먼지로 건기를 보내면서도 한국의 구정을 축복합니다.

2025.1.28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

김세현 노미정 (준형)드립니다



남아공 선교 소식

김경환 선교사

남아공화국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1. 교도소 아버지 학교:

2018년부터 헬더스트롬 교도소와 스프링북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섬길 때마다 20-30명의 재소자들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재소자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재소자들이 쓴 편지를 모두 거두어서 가족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편지를 받은 재소자들의 가족이 형제들을 찾아오고 그 가운데 용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형제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현재까지 465명의 재소자들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2. 어머니 학교:

현재까지 17번의 어머니 학교를 섬겼습니다. 현지 어머니들과 한국 선교사들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20-30명의 자매들을 초대하여 해마다 두 번 어머니 학교를 섬깁니다. 남아공에는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이 대략 20 퍼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엄마 홀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 신학교 사역:

남아공 흑인 마을과 칼라드 마을에는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현지동역자들과 선교사들이 협력하여 신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416명의 학생들이 디폴로마 과정(2년)을, 2022년과 2024년에 35명의 학생들이 학사 과정을, 그리고 2024년 21명의 학생들이 목회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DR 콩고 피그미족을 위한 복음·교육·의료 사역

복음사역

금년 한 해도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부냐키리 지역의 피그미 사역을 무사히 은혜롭게 마치고 미국에 나왔습니다. 아프리카미래재단 아틀란타 지부와 여러 후원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누군가의(교회, 교단, 선교단체) 보내심과 기도와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최관신 선교사 드림



교육사역



의료사역





AFRICA FUTURE FOUNDATION NEWS

두렘돈 장학재단 장학금 3년 연속 장학금 아프리카 신학생 지원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두렘돈장학재단(이사장: 정진휘 장로)은 아프리카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 2천 불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장학금을 보내왔다. 두렘돈장학재단은 지금까지 3년째 아프리카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우리 재단에 보내오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우간다에서 에스라성경대학을 운영하는 김세현 선교사가 에반겔리아대학교와 공동으로 우간다 선교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 장학금을 제공해 오고 있다.

11월 8일에 정기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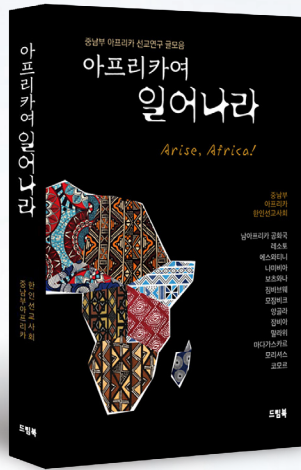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본부 정기이사회를 11월 8일 개최하였다. 이날 7명의 이사들이 모인 가운데 7월에 DR콩고에 단기사역자로 참여했던 고우리 씨와 브라이언 박의 선교 사역 보고를 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재정 보고를 받고 정혜림 선교사(니제르), 콕재근 선교사(이집트 수단 난민사역), 강 스테반 선교사(모로코)를 월 300달러씩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프리카여 일어나라, AFF USA 지원으로 발간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본부가 후원한 중남부아프리카 선교연구 글모음집 《아프리카여 일어나라》가 출간되었다. 남아공화국, 에스와티니 등 중남부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모임인

중남부아프리카선교사회(회장 강병훈 선교사)는 선교전략 연구모임을 9월 둘째 주간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개최하여 이때 발표된 논문 다섯 편과 케이스스터디 네 편이 포함되었다.

이 책에는 한용승 선교사(탄자니아)가 '아프리카 문화와 기독교 선교', 강병훈 선교사(남아공)(전 남아공)가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로: 선교의 새로운 지평', 전성진 선교사의 '글로벌 차세대 동원', 감경래 선교사(남부아프리카)가 '남부아프리카 선교: 현황, 도전, 그리고 전략적 전환', 양승훈 선교사(에스와티니)가 '남부 아프리카에서의 성경적인 성윤리와 건강한 생활습관'의 논문이 실렸다.



케이스 스터디로 양승록 선교사(남아공)의 '이동신학교로 아프리카를 품는 아바신학교', 박창식/박선희 선교사(남아공)의 '남아공 ENM캠퍼스 사역 현황', 이성희 선교사(나미비아)의 '나미비아 유치원 사역', 김영애 선교사(남아공)의 '남아공 타운십에서 유치원 사역'을 실었다. 드림북 출간, 신국판 320면. 17,000원.

미국 리더십 모임 2월 21-22일 양일간 아틀란타에서 개최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본부는 각 리더십 모임을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아틀란타에서 모인다. 이 기간에는 미국 본부 설치 5년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 보고와 평가를 갖고, 각 지부 활동을 점검, 미국 본부 이사장과 사무총장, 각 지부장의 역할과 임무를 한정하고, 2024년 선교대회 평가회를 갖고, 앞으로의 각 지부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빅상은 대표의 관련 기념사업도 논의될 예정이다.

AFF미국본부의 리더십모임에는 미국본부 임원들과 각 지부 대표와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한국본부에서 최재걸 이사장, 홍순철 대표, 황현룡 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홍식 이사장, 장기발전기금 10만 달러 기탁

김홍식 이사장은 아프리카미래재단의 지난 5년을 결산하며 연말을 맞아 미국 본부의 장기발전을 위해 10만불을 기탁했다.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본부는 김 이사장의 뜻을 따라 미국본부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의미있게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 AFF, 니제르 그레이스재단과 MOU 체결



한국 아프리카미래재단(Africa Future Foundation)과 니제르 그레이스재단(Grace Education Ministries for Niger)은 공동으로 사역을 펼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아프리카 서부내륙국가 니제르에서 그레이스아카데미와 임마누엘 학교를 운영하는 정혜림 선교사는 12월 17일 아프리카미래재단을 방문하고 이사장 최재걸 이사장과 양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니제르에서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활동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본부에서는 니제르 정혜림 선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지난해 후원의 밤을 통해 13,000불을 지원하였고, 대지 구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한 바 있다.

박상은이 만난 두 사람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사무총장)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진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의 설립자였고, 지난 16년 동안 이를 이끌어 왔던 박상은 대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시절에 영국 케임브리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온 배도선(Peter Pattisson) 선교사를 만났다. 그는 OMF 소속 의료선교사로 마산 아동결핵병원에서 원장으로서 부모와 나라가 다 돌보지 못하던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았던 신실한 의사였다.

그는 의료선교사로서 의료사역과 함께 의과대학 학생들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CMF가 생겼으며, 훗날 한국누가회가 생겼다. 그는 또 성경읽기와 묵상을 중요하게 생각해 한국성서유니온을 설립한 인물이다. 그는 훗날 영국 왕실 훈장을 받기도 했다.

박상은은 의과대학 시절에 의대생들로 구성된 CMF에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그 기관의 리더가 되었다. 그가 의과대학 학생시절에 배도선 선교사가 강사로 참여하였던 첫 수양회에 참여하면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고, 배도선 선교사는 이후 박상은의 멘토가 되었다.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어디에서 인턴을 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배도선 선교사는 청년 박상은에게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던 장기려 박사가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추천 하였다. 복음병원은 한국전쟁기에 장기려 박사가 설립한 병원으로 그는 평생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다. 배도선 선교사가 박상은에게 그 '사랑의 인술' 장기려 박사에게서 배우도록 한 것이었다.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올라가 수련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던 시절, 박상은은 반대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내려가 수련의 생활을 했다. 그는 동료 인턴 양승봉과 몇 간 호사들과 직원들과 함께 복음증창단을 만들어 병실찬양을 이끌었고, 이동도서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신앙적인 도서를 읽도록 했다.

부산에서 살던 내가 처음 박상을을 만나고 친구가 된 것이 그 시절이었다. 삭막한 부산에서 우리는 함께 '예수시대'를 만들어 기독 문화운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 청년의사 박상은은 복음병원에서 장기려 박사의 신앙과 삶을 보며 전인치유, 생명윤리, 그리고 의료 선교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그의 평생 사역의 비전이 되었다.

의사는 명석한 머리로 대학의 다른 전공자들보다 2년을 더해 6년 동안 의학을 공부한다. 졸업과 함께 의사가 되고 수련의과정을 거쳐 전문 의가 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청년의사 박상은은 장기려 박사를 통해 '기독교의사의 길'을 배웠고, 이후 부와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여느 의사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이것은 청년의사 박상이 배도선 선교사를 만나고, 장기려 박사를 만나면서 생긴 일이었다.

박상은은 이후 기독교의사의 길을 걸으면서 안식년을 얻어 미국 커버넌트신학교에서 신학과 생명윤리를 공부하였다. 그는 의사로 일하면서 북한 의료사역에 깊이 참여하였고 열번 이상 북한을 방문했다. 그런데 북한의 폐쇄정책으로 그 길이 막히고 있을 때 한 선교사의 방문을 받고,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 의과대학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조직하고 아프리카를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에스와티니의 의과대학 설립이 지연되고, 선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아프리카미래재단은 그 일을 중단하고 의료와 보건과 교육을 특화하는 NGO사역을 펼치게 되었다. 박상은이 2023년 갑자기 이 땅을 떠나기까지 16년 동안 50회 이상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드나들며 의료와 보건을 통한 선교에 집중하였다. 그 아름다운 사역이 검은 대륙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제 그의 뒤를 잇는 수많은 의료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잠비아에 제라보건대학이 세워지고, DR 콩고에 '키작은 사람들' 피그미족을 위한 간호대학과 조산병원이 세워졌다. 최근에는 그가 꿈꾸었던 에스와티니에 17년 만에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의과대학이 개교했다.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의료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가 중심이 되어 조직하고 활동하였던 한국기독교의사회나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도 귀한 동역자가 되어 아프리카 의료 보건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한국교회 의료선교에 전설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삶과 그 길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 (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250)

714-732-1484 (미국) +82) 31-342-9182 (한국)

✉ aff@africaff.org 🌐 www.africaffusa.org

☎ 아프리카미래재단

📷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Zelle를 보내실 때

- 이메일 : africaffusa@gmail.com

- Africa Future Foundation

☐ 송금하실 때

- 은행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 121000358

☐ 송금하실 때 (아틀란타지부 전용)

- 은행 : Chase Bank

- 계좌번호 : 462352621

- Routing 번호 : 322271627

선한 청지기들 2024. 10. 1-12. 31 / 재정 보고

현금자 명단

김명숙 김준 김은식 김응원 김인용 김홍식/김정미 나삼진 남일우 배기호 백형순 송은석/이원희 석소정/김진영 송영애 송채원 신영애
 신정수 심선희/심재광 오윤희 이경호 이승숙 이애숙 이종남 이홍철 장국현 장순애 정진철 태승남 한창훈 황길남/황로미 허지국/허영화
 Thomas Bae, David Choi, Kini Han, James Kim, Eun S. Kim, Ester Lee, Pae Lee, Michelle Lim, Woo/Min Sun Lim, Moses Park,
 Simon Paek, Michael Yang, John Yahng, Roger Smith, Victor Rhee
 두렘돈장학재단, 명신인슈런스,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새벽이슬교회, 신약국(신사라), 예수소망교회, 오렌지카운티살롬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JJ물리치료(정정훈), America Online Foundation, Exalting Christ Church of Atlanta, Fidelity Charitable,
 Morningstar, Foundation, Hope Family Medicine with Express Care, Livingstone Home Health, First Priority Hospice,
 Journey for New Hope

*혹시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AFF사무총장(714-732-148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으로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기 결산

수입부

10월	4,182
11월	7,190
12월	123,780
	6,150
수입계	141,302

지출부

지정사업비	
선교장학금	2,450
남아공(이규성)	930
중남아선교사회	4,127.45
소계	7,507.45

행정비

회보 인쇄비	2,024.57
우편료	709.70
인건비	2,743.50
홈페이지 관리	542.11
세금/CPA 수수료	642
발전기금	100,000
지출 합계	114,169.33

수입부

아틀란타 지부

10월	1,000
11월	4,500
12월	4,300
합계	9,300

지출부

아틀란타 지부

조산병원 운영비	4,720
송금수수료	100
합계	4,820
잔고	13,390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

